

# 우리의 야생동물(포유동물) 이야기

유 병 호

(국립환경과학원 생태복원과장)

## 너구리

예로부터 우리나라에서 너구리는 외모가 둔해 보이고 능글맞고 의뭉스러워 미련한 동물로 인식해 왔다. 그래서 우리는 능청맞고 의심스러운 사람한테 ‘너구리’라는 별명을 곧잘 붙여준다. 세계적으로도 너구리에 대한 이야기는 비슷해서 동화나 TV 속의 너구리는 항상 어수룩하면서도 교활한 성격의 소유자로 등장한다.

우리나라에서 너구리라는 별명을 가진 대표적인 인물은 1980년 중반 프로야구 투수로서 30승이라는 대기록을 세운 장명부 선수일 것이다. 그에게 너구리라는 별명이 붙은 이유는 마운드에서 타자와 승부할 때 능글맞고 느긋하면서도 돌출적으로 행동하면서 수싸움에는 이겼기 때문으로 행동이 마치 너구리의 습성과 비슷한데서 붙여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너구리의 성격은 그리 단순하지가 않다. 느긋하면서도 호기심이 많아 주변의 작은 움직임에도 세세한 관심을 보이는 한편, 의심이 별로 없고 경계심도 부족하여 텃에 잘 걸려들기도 한다. 동화나 TV 속에서 많이 보아 우리에게 익숙한 눈 주위가 검고 꼬리에 줄무늬가 있는 너구리는 미국너구리이다. 우리나라 너구리는 미국너구리와 좀 달라 행동이 민첩하고 작은 소리나 냄새에도 민감하게 반응한다.

너구리는 야생동물의 먹이사슬에서 중간 정도를 차지하는 잡식성 동물이다. 그래서 동물생태계에서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그런데 1990년대 중반부터 너구리의 개체군이 크게 증가하면서 생태적 및 사회



적으로 부정적인 측면에서 관심을 자아내고 있다. 생태적으로는 너구리가 땅위에 번식하는 꿩, 오리류 등의 알을 깨 먹어 이들 종의 개체군을 크게 감소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1990년 대 중반에 흰뺨검둥오리의 생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저수지 주변에서 번식장소를 조사한 적이 있었는데 동지에서 발견된 알 모두가 너구리에 의하여 파괴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최근 일부 수렵인들의 의견에 따르면 너구리에 의해 국지적으로 꿩의 밀도가 감소하여 수렵동물에서 제외시켜야 할 정도라는 등 야생동물 생태계에서 너구리 피해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사회적으로는 너구리가 민통선 접경지대를 중심으로 소, 개 등 가축에 광견병을 옮기는 매개동물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너구리의 개체군이 증가하면서 먹이와 영역 투쟁이 발생하였고, 영역에서 밀려난 개체는 먹이를 먹지 못해 육체적으로 허약해지면서 광견병에 걸리게 되었으며, 먹이를 찾아 인가로 내려와 소나 개 등 가축의 먹이를 먹다가 가축과 싸움이 발생하면서 광견병이 가축에 전파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 2 재미있는 야생 동·식물 이야기

또한 2007년 겨울에는 강원도 화천·양구지역 비무장지대를 중심으로 의문의 너구리 사체가 잇따라 발견되었다. 그 원인은 개선충, 모낭충, 곰팡이성 피부병 등의 감염으로 밝혀졌는데 이 역시 영역에서 밀려난 개체들이 허약해지면서 발병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면 너구리의 밀도가 왜 크게 증가하였을까? 그 원인은 천적동물인 늑대, 표범, 멧돼지, 오소리 등이 사라져 생태계의 균형이 깨졌기 때문이며, 특히 주요 천적이었던 오소리가 밀렵으로 감소되면서 상대적으로 피식자인 너구리가 증가한 것이다. 원래 자연 속의 야생동물들은 서로 먹고 먹히는 관계 속에서 생태계 스스로가 균형을 유지해 가는데, 인간의 무절제한 간섭이 균형을 깨트린다. 너구리는 자연생태계에서 먹이사슬의 단절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좋은 교훈이다.

잡식성 동물인 너구리는 자연환경의 적응력이 매우 뛰어나다. 그래서 평지부터 해발 2000m 아고산지대의 산림이나 하천 주변에 광범위하게 분포하며, 최근에는 점차 서식영역이 넓어져 인가 주변이나 대도시의 공원에 출현하기도 한다. 몇 년 전 종묘나 양재천에 나타난 너구리도 그러한 경우이며, 앞으로 인가 주변으로 영역을 확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외국에서는 너구리가 인가 주변의 음식물 찌꺼기를 먹으려고 쓰레기통을 뒤져 주변을 온통 쓰레기장으로 만드는 바람에 사람에게 귀찮은 동물로 전락하였다.

너구리의 외모는 여우와 비슷하다. 그래서 너구리를 여우로 오인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2003년 강원도 양구에서 여우 사체가 발견되면서 여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던 시절이다. 어느 일요일 모 방송국에서 경기도 광주에서 여우 사체를 발견하였다는 제보를 받았으니 확인을 해 달라고 전화를 했다. 현지를 찾아가 신고자와 방송국 기자를 만나 신고자에게 너구리가 아니냐고 물어보니 자기가 30년 동안 산을 다니며 동물을 봐 왔는데 너구리를 모르냐며 강하게 부인하였다. 그래서 이들과 같

이 동물 사체가 있는 곳으로 가보니 아니나 다를까 너구리가 죽어 있었다. 서로 쑥스러워하며 간단한 인사를 하고 돌아오면서 죽은 시체를 보고도 혼동될 정도니 살아 있는 동물을 먼발치에서 보았을 때는 더 많은 오인이 있을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였다.

너구리는 다리와 꼬리가 짧고 털은 긴 편인데 겨울에는 더욱 길어지며, 전체적으로 황갈색이고 어깨, 등, 꼬리의 털끝은 검은색이다. 발은 흑갈색이고 얼굴의 양옆과 눈 아래는 검다. 여우는 너구리보다 몸체와 꼬리가 길고, 귀는 삼각형이다. 털색은 등에서 옆구리까지는 황토색이고 얼굴 아래부터 배까지는 흰색이다.

너구리는 야행성 동물로서 여름에는 주로 개구리를 먹는데 봄에 벼이앙 후 개구리를 잡아 먹고자 논을 돌아다녀 어린 벼에 피해를 주기도 한다. 그 밖에도 설치류, 파충류, 어류, 곤충, 연체동물, 식물의 열매를 먹는다. 가을에는 장과류, 종자 또는 근경과 같은 식물질이 중요한 먹이다. 나무 타는 실력이 수준급이어서 나무 위에 올라가 열매를 따먹곤 한다.

너구리는 개과 동물 가운데 유일하게 겨울잠을 자는 동물로 충분한 먹이를 먹은 개체는 11월부터 3월까지 겨울잠을 잔다. 다만 겨울에 기온이 상승하면 먹이를 먹으러 깨어나기도 한다. 교미는 1월부터 3월 사이에 이루어지고 임신기간은 59~64일이며 보통 4~8마리의 새끼를 낳는다. 새끼 낳을 때의 행동은 특이하다. 어미가 자신의 입으로 뱃속의 새끼를 꼬집어낸 뒤 새끼를 감싸고 있던 얇은 막을 벗겨낸다. 갓 태어난 새끼가 1개월이 지나면 어미는 새끼를 데리고 바깥바람을 쏘이며 길을 가르쳐주는데, 이것은 햇빛에 적응하면서 안전하게 먹이를 찾을 수 있도록 훈련시키기 위해서이다. 새끼는 암수가 함께 돌보는데, 태어나서 2개월 동안은 모유를 먹고 여름이 끝날 무렵이면 새끼들을 독립시킨다. 새끼는 떨어지지 않으려 하지만 냉정하게 쫓아낸다. 그렇게 냉혹한 세계로 내몰린 새끼는 태어난 지 9~11개월만에 성적으로 성숙하므로 비교적 높은 번식력을 가진 동물이다.

원래 극동아시아·시베리아 동부·중국·일본·인도지나반도 북부 등에 분포하였으나, 러시아가 모피 생산을 위하여 유럽 지역의 러시아로 도입해 자연에 정착시킨 뒤 점차 서쪽으로 이동하여 지금은 유럽의 중부까지 분포가 확대되었다. 우리나라는 도서지방을 제외한 전국에 서식한다.

## 족제비

“족제비도 낫짝이 있다”라는 속담이 있다. 이는 체면도 염치도 없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족제비의 거칠고 공격적인 성격에 비유한 것 같다. 반면 족제비는 상당히 자존심이 세고 털에 대한 사랑도 각별한 동물이라 한다. 앞에 물웅덩이가 있고 뒤에서 사냥꾼이 쫓아오면 물웅덩이를 지나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사냥꾼에게 그대로 잡힐 정도로 자신의 털을 소중히 여긴다고 한다. 또한 영국의 우화에 따르면 족제비가 정직, 청렴, 결백, 정의, 공정성, 법 앞의 평등 등에 중요한 의미가 있어 관사님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도 중요한 회의 때면 꼭 족제비 털을 두르고 참석한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와같이 문화적으로 족제비에 대한 인식은 어떻게 응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사회적 측면에서의 족제비에 대한 평가는 농가 주변에 서식하면서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쥐들을 잡아먹어 이로운 동물이라고 여기는 한편, 농가의 닭장에 침입하여 닭을 물어 죽이는 해를 끼치는 동물이라 여기기도 한다. 그러나 오늘날 족제비에 의한 가축 특히 닭의 피해는 무시할 정도로 작아 부정적인 면보다는 긍정적인 면이 훨씬 많다고 본다. 쥐를 없애주는 것 말고도 해방 후 경제가 어려웠던 시기에 수출용 모피를 제공하여 국가경제에 도움을 주기도 했다.

모피 생산과 관련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다. 일제시대 일본인들은 한국의 족제비 모피가 경제적으로 가치가 높다고 판단하여 1930년경 모피를 생산하기 위해 한국 족제비를 자기 나라로 도입하고 인공증식을



추진하였다. 이 과정에서 사육중인 한국 족제비가 탈출하여 자연에 적응하였고, 일본 족제비와 경쟁이 붙어 일본 족제비를 산속으로 몰아내고 농경지와 도심지의 좋은 영역을 차지하였다. 지금도 구주 전역과 본주의 남쪽으로 분포 영역을 넓혀 살아가고 있다. 많은 설움을 당한 우리에게 그래도 위안이 되는 이야기이다.

모피 외에도 족제비의 꼬리털은 붓의 재료로서 크게 각광을 받고 있는데 황모라 하여 가격이 비싸고 인기가 좋다. 그래서 족제비는 꼬리를 보고 잡는다는 말이 있다. 이는 족제비 꼬리털로 매는 붓이 붓 중에 으뜸이기 때문인데 황모필은 고려 때부터 사신이 오면 몇 자루씩 하사하던 것이었다. 그만큼 귀중한 것으로 우리나라 토산품이었다. 특히 붓이 힘이 있어 작은 글씨, 서예, 단청, 제도, 도안 등 섬세함을 요하는 일에 주로 사용했다.

이처럼 족제비는 붓으로, 모피로 인간에게 귀한 물품을 제공했지만 한 때 모피 수집을 위한 포획과 족제비의 먹이인 쥐를 잡기 위한 쥐약의 대량 살포에 따른 2차 피해로 개체군이 감소하였다. 다행히도 지금은 밀도가 많이 회복되었으며, 자동차에 의한 로드킬 피해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족제비는 몸이 길고 다리가 짧으며 얼굴은 뾰족하다. 머리는 삼각형에 가까우며 귀는 짧고 굽다. 겨울철에 등 부위는 밝은 황갈색 또는 담황색이며, 옆구리와 배 부위는 등보다 더욱 옅은 색이다. 여름철의 털은 듬성듬성한데, 겨울철보다 더 어둡고 짧고 거칠다. 입 주변에서 아래턱에 뚜렷한 흰 무늬가 있으며 수염은 갈색이다. 발바닥에는 털이 거의 없다.

족제비는 농촌뿐만 아니라 도시의 산림에도 적지 않게 서식한다. 다만 크기가 작고 낮에는 거의 활동하지 않는 야행성 동물이라서 쉽게 보이지는 않는다. 행동이 민첩하고 청각과 후각이 발달하였으나 시각은 약한 편이며, 나무에도 잘 오르고 수영도 잘 한다. 가을에는 숲에서 마을로 이동하며 먹이가 부족할 때 먼 거리를 이동한다. 성질이 좀 사나운 편이어서 먹이를 거칠게 공격하고, 단지 죽이기 위해서 습격하기도 한다. 주변을 살필 때에는 앞다리를 들고 하는 습성이 있다. 여우·담비·독수리·올빼미 등의 천적을 만났을 때는 향문 양쪽에 있는 한 쌍의 향문샘에서 악취가 나는 노란 분비액을 내뿜어 자신을 보호한다.

보금자리는 숙이 빈 나무를 이용하기도 하고, 나무뿌리나 통나무의 밑, 돌 틈, 쥐의 굴 또는 건물 안에 만드는데, 동물의 털과 마른 식물로 내부를 꾸민다. 종종 벌채한 잡목을 쌓아놓은 더미 속에서 번식하기도 한다. 주로 소형 설치류를 먹고, 알·개구리·물고기도 잡아먹으며, 추운 겨울을 대비해 미리 먹이를 저장하기도 한다.

담비, 오소리, 수달 등 족제비과 동물들이 다 그렇듯이 족제비도 수컷이 암컷보다 훨씬 크다. 이것은 번식기에 크고 유전적으로 우량한 수컷만이 암컷과 짝짓기를 함으로써 수컷들은 몸이 크게 진화해 왔고, 혼자

서 새끼를 키우는 암컷들은 에너지를 적게 소모하고 쥐의 굴처럼 좁은 곳에도 쉽게 거처할 수 있도록 몸을 작게 유지하기 때문이다. 수컷의 몸 길이는 28~46cm이고 암컷은 몸길이 25~30cm이다.

겨울잠을 자지 않으며 암컷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은 늦겨울에서 초봄 사이에 벌어진다. 여러 마리의 수컷이 암컷 한 마리를 쫓아다니며 격렬한 투쟁을 하다가 가장 강한 수컷이 암컷과 교미하게 된다. 31~34일의 임신 기간을 거쳐 4월~6월 사이에 평균 5~6마리의 새끼를 낳는다. 어미의 보살핌 속에서 살다가 8월 말경에 어미를 떠난다. 그러나 새끼들은 뿔뿔이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을까지 함께 다니다가 그 뒤에 헤어져 완전 독립생활을 하게 된다.

## 수달

물이 오염되면 가장 먼저 사라질 동물이 무엇일까? 바로 건강한 습지와 하천의 지표종인 수달이다. 즉 수달은 하천생태계에서 먹이사슬의 최고 위치에 있는 육식성 포식자로서 하천생태계의 질서와 건강을 유지해주는 중요한 핵심종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수달이 서식하는 하천은 매우 건전한 생태계를 가진 것으로 보기 때문에 하천 복원에서 수달이 서식하는 하천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

수달은 아주 장난을 즐기는 동물이다. 최근 TV에서 수달에 대한 프로그램이 자주 방영되는데 물 속에서 서로가 쫓고 쫓기는 장난을 하는 것이 마치 어린아이들이 물장난을 즐기는 광경을 보는 것 같다. 때로는 진흙이나 눈으로 덮여 있는 독에서 미끄럼을 타거나, 씨름을 하는 것처럼 물 속에서 서로가 쫓고 쫓기는 장난을 즐긴다. 아마 족제비과 중에서는 오소리 다음으로 장난기가 많은 동물일 것이다.

몸 전체에 짧은 털이 뽀뽀이 나 있고 머리는 평평하고 둥글며, 목은 짧고 몸통은 원통형이다. 꼬리는 몸통 쪽은 굵고 끝으로 가면서 가늘어진다. 다리는 짧고 발톱까지 발가락에 물갈퀴를 가지고 있으며, 작은 귀



와 콧구멍은 물속에서 닫을 수 있는 등의 체형이어서 수중생활에 알맞게끔 진화되었다.

수영을 할 때는 뒷다리와 꼬리의 운동을 이용한다. 잠수실력도 좋아서 대개 1~2분 동안, 최대 5분 정도 잠수를 한다. 물의 종류도 가리지 않아서 하천과 같은 내륙의 수계, 하구언 및 바다의 만(灣) 등 모든 물이 있는 지역에서 서식하는 훌륭한 수영선수이다. 다리가 짧아 땅위에서는 빨리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수백 미터 떨어진 육지지역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나 때때로 다른 강으로 이동하거나 겨울에 결빙되지 않은 지역을 찾기 위해 육로로 수 km를 이동하기도 한다. 잠자리도 특이해서 물가에 영구적인 굴을 1개 이상 가지고 있다. 주 출입구는 수면 아래에 있으며 수면 위에 있는 보금자리까지는 위로 경사져 있다. 굴에는 몇 개의 통로와 마른 잎으로 가득한 방이 있다. 또한 굴 주변에는 몸을 구르고 단장하는 장소가 있으며 겨울철에는 얼음 위로 통하는 구멍이 있다.



낮과 밤 모두 활동하나 밤에 더 많이 활동한다. 물에서 노는 걸 좋아하고 물에서 주로 살다 보니 먹이도 대개 물고기·개구리·가재·게·수생 무척추동물이지만 육지에서 사는 쥐나 토끼, 새도 가끔 잡아먹는다. 먹이를 잡아먹을 때는 앞발이 아니라 입을 사용한다.

수달의 서식장소는 물가의 큰 바위 주변에 물고기 뼈가 항상 흩어져 있고, 바위나 돌 위에 배설물과 모래나 진흙에 발자국을 남기므로 확인할 수 있다. 수컷은 1마리 이상의 암컷과 중복되는 영역을 가지지만 다른 수컷과는 거의 중복되지 않는다. 암컷 역시 다른 암컷에 대해서는 영역을 방어하며, 영역은 냄새로 표시한다. 수달은 가장 우위에 있는 수달이 가장 좋은 서식지를 차지하는 계급적 사회 구조를 이루고 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수달은 멸종해 가고 있다. 모피를 위한 지나친 포획과 하천의 직선화를 하면서 바위 무더기, 큰 나무뿌리 등 보금자리로 이용할 수 있는 서식지의 파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고, 간접적인 원인으로서는 수질오염과 물고기 생태계의 교란 등을 들 수 있다. 최근 여러 지역에서 수달이 발견되고 있었지만 서식지별 개체군의 크기는 서식지의 교란으로 인해 감소하고 있다.

그래서 국내 및 국제적으로 수달을 멸종위기 야생동물로 지정하여 적극적으로 보호를 추진하고 있다. 환경부에서 지정한 멸종위기종이고 국제적으로 멸종위기종에 관한 국제거래협약(CITES) 부속서 I에 속한다. 수달을 보호하는 방안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하천 정비나 댐의 건설과 같은 인위적 간섭을 가능한 피하는 것일 것이다.

수달의 털은 이중 구조로 되어 있는데 길고 거칠며 광택을 가진 흑갈색의 바깥 털과 짧고 부드러우며 속살이 보이지 않은 정도로 매우 조밀하게 난 안쪽 털이 있다. 이러한 구조는 수달이 잠수할 때 바깥에 있는 털이 안쪽 털을 보호해 오랜 시간의 잠수에도 털이 젖지 않게 하고 또한 조밀한 털 사이에 있는 공기도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아 체온을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수달의 모피는 보온, 방수능력 매우 뛰어나 비싼 가

격에 거래되곤 하였다. 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 수달의 모피는 고려 인삼과 더불어 최대의 교역 품목이었다.

수달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분포한다. 내륙에는 산악지대의 계곡 하천 및 강에 서식하는 한편, 해안지대는 남해안 및 남해안과 인접한 동·서해안에 사는 흔하지 않은 중형의 포유동물이다. 다행히도 최근에 팔당호 아래, 강원도 평창, 화천, 인제, 원주, 강릉, 충북 충주호 상류, 경남 하동, 전북 남원, 경북 봉화, 울진, 대구 등으로 분포지역이 확대되고 있다.